

가정 상담

통권 497호

2025

01

KORJ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 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5년 1월 2일에는 사무실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관련 기사 35면)



지난 2024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6주기를 맞아 광배희 소장과 직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였다. (관련 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공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 : 정직하게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4 · 새해 메시지
- 6 · 특집 ① | 202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1 · 특집 ② | 상담소와 대검찰청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일주년
- 18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⑩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⑤
- 27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어떻게 할까요
- 33 · 좋은 책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지막 수업
- 34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대한민국에서 가족 관련 모든 법과 제도, 정책의 시작에

.....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깊은 어둠이 내린 상태입니다. 이 어둠이 새벽 동트기 직전의 가장 짙은 어둠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새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에 대해서는 호불호를 떠나 본능적으로 꺼리는 이들이 많습지만, 사실 뱀은 변화하며 성장하는 상징이라고 하니 부디 우리의 새해도 이렇듯 변화를 거듭해 모든 면에서 발전하며 부쩍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제에 이은 다를 것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발판 삼아 조금 더 멀리 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담소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첫 마음을 되새겨 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지나간 일, 결과를 얻은 일에 대해서는 그 성과만을 만족해하면서 그것을 반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다만 올해는 호주제 폐지 20주년의 해로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상담소의 첫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과연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족법상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소 회관 입구 바닥에는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등이 여기서 사라지다’라는 내용의 문구와 상담소 이름, 설립 연도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새긴 황동으로 된 인권표지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에서 진행된 인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권표지식 설치 작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상담소가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 철폐의 산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뜻을 길이 남기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상담소에서는 이미 호주제 폐지는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암암리에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성평등의 문화와 정서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올해 호주제 폐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상담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왜 상담소가 이 일에 천착하여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하고자 노력하였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해 아직도 남아 있는 가족법상 남녀차별, 부부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는지 있다면 그 규정을 폐지 내지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동성동본 금혼이란 길이 지켜가야 할 고귀한 가치이고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이 모두 무너진다고 하던 그 무도한 주장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와 관습이란 모두 당대의 사회와 사람, 그 삶의 가치와 더불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것이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상담소의 사명에 닿아 있다는 것을 상담소 모든 구성원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담소의 모든 활동은 상담소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번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구성원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 끝에 상담소를 찾은 이들에게 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 답이 바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하며 비인간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가족법의 내용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 내지는 제정 등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상담소가 아무리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상담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달아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개혁을 통해 남녀가 평등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 가정을 만들고자 사회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근본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아내, 어머니, 딸인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와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 연원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였고, 숨겨져 있던 가정폭력의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며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과 시행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밖에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또한 상담소의 오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어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면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가족, 가정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제도나 정책 대부분에 상담소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상담소는 어떤 이들에겐 이혼을 권하는 몫쓸 곳, 또 가족,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혼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곳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소는 이러한 세간의 평가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삶에 주목하여 법과 제도, 정책을 펴는 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다문화가정, 비혼모 등의 한부모 가정 나아가 성년후견 제도 및 친생추정 조항, 보호출산제 문제를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는 가사소송법의 전면개정에 대한 문제까지를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며 더 나은 사회와 가정, 가족구성원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담소의 여정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새해에는 아무쪼록 평온할 일상이 돌아와 있기를, 새해의 소망과 염원을 티끌 없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때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메시지에 담아 봅니다. 상담소는 지금처럼 언제나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올해는 상담소 창립 69주년의 해를 지내게 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상담소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성원을 마음에 담고 힘차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모든 분에게, 모든 가정마다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집 1

202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 총결산

1월

- 2일 시무식
- 5일 SBS TV '과몰입 인생사' 프로그램과 이태영 선생님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가사소송법개정공청회에 진술인 참여 및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등 이행확보제도 강화의 필요성」 주제 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6~18일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법과 생활」 진행
- 22일~2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관장 및 지도/ 박소현 법률구조1부장
- 26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본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법률상담소' 업무표장 등록 갱신

본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VIII 「등지교실 VIII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발간

가정법원 출장상담 및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학생 현장실습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4,865건

2월

- 1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비혼모시설 이용자 대상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16일 상담소 내부 회계감사/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과장
- 20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대상 생활법률강의/김민선 변호사
- 22일 정기 전기 이사회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의 조건과 너의 의미'/김병후 원장



- 23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8,29일 상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
- 29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기술평가심사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북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학생 현장실습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4,500건

3월

- 5일 본소, 동작구 가족센터와 관내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기관연계 협약 체결
- 6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 부부 및 이스라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전 위원장 방문 및 간담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7일 2024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에서 “가정폭력사건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실제”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국민일보와 본소 2023년도 이혼상담 통계 및 노년이혼상담 관련 인터뷰/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1~13일 2023년도 채용업무에 대한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 14일 법무부 감사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8호(상담위탁) 관련 수탁기관 회의 참석/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1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김민선 변호사
- 22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신용회복상담 실시/전규선 상담위원
- 25일 애란원 입소자대상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6일 정기 총회



- 2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박슬기 변호사
- 2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496건

4월

- 5일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



- 제61회 법의 날 기념 ‘법률구조제도 홍보 및 가족법개정서명 운동’ 진행
- 8일 서울가정법원 제8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및 본소 가정폭력행위자 수탁 상담 현황 및 프로그램 등 소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15,16일 서울경찰청 ‘24년 상반기 여성수사 실무과정 워크숍’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7일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신용회복상담/전규선 상담위원
- 19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세미나 참석/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6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가족법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가정폭력예방지침서 I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마라」 수정 보완하여 재발간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358건

5월

- 16일 송의여자중학교 폭력예방교육/박상진 상담위원
- 20일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HnL)의 “아동 최선의 이익실현을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양육비 청구 이행확보방안 연구” 관련 화상 자문/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3일 경기도주거복지상담협의체와 파주시 금촌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조은경·고현희 상담위원



- 24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주원 원장과 이미정 본부장, 이동현 경영혁신본부 차장 방문 및 양육비 소송구조의 확대와 면접교섭 지원 방안 관련 논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30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이란 무엇인가’/김병후 원장



- 31일 2024년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곽배희 소장

「어떻게 할까요」 개정 9판 발행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246건

6월

- 3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부모 가정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구조 실무자 회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김지은 상담위원
- 1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영훈 현판식’ 참석/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 1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마키코 기자와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정신,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 등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18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19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강좌/박슬기 변호사
- 21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 25일 동국대 법학과 법률구조 현장체험교육/조은경 상담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교육/김진영 상담위원
- 28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전국가정폭력협의회 종사자 교육/복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101건

7월

- 1~12일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관장 및 지도/박소현 법률구조1부장



- 9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강좌/김민선 변호사
-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22일 법무부 감사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6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 및 이화여대 학생 현장실습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5,297건

8월

- 13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강좌/박솔기 변호사
- 14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화상 간담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조희원 주무관과 유연근무 및 육아병행지원제도 논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 22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과학으로 본 분노'/ 김병후 원장
- 27일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박상희 양성평등팀장, 김성혜 주무관과 본소 가폭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28일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주최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8,29일 자원봉사 대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의 이해와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9일 법률구조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 실무자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정상원 전산담당자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 및 이화여대 학생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4,437건

9월

-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II」 개강/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6일 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가족 저출생연구본부장, 김소영 연구위원과 '조손가족의 가정위탁 현황과 법적 문제' 관련 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권지연 상담위원
- 9일 아동권리보장원 손호성 아동보호본부 아동보호기획부장, 김혜원 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하에 진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 법률지원'에 관해 논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권지연 상담위원
- 12일 파주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출장상담/조은경 상담위원



- 애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복미영 상담위원
-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3일 본소 이사인 박영립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4일 법무부 감사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6일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 교육 진행/전규선 상담위원
- 30일 법무법인YK '고령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 참석/
 곽배희 소장(축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II」 강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330건

10월

- 7~29일 이화여대 리갈클리닉(II) 수강생들에게 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출장상담실에서 상담참관 지도/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8일 대검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와 간담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천다라 상담위원

-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4일 이연숙 류큐대학 교수, 이노우에 마사코 카나가와대학 교수 등 일본학자 5명과 상담소 사업과 가족법 등에 관해 화상 회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5일 본소,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개최



법률홍닥터 변호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지원 사업 관련 모임/조은경·복미영·권지연 상담위원
이레상담교육원 법률구조체험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28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9일 애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본소 이사인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화제의 신간 『보통의 분노』 발간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302건

11월

- 4~18일 이화여대 리갈클리닉(II) 수강생들에게 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출장상담실에서 상담참관 지도/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6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 개최/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차연실·천다라 상담위원
- 7일 여성정책연구원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 모색' 화상 간담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2일 법무부 감사회의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4일 본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 20일 자원봉사자 모임 및 교육/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 21일 김병후 이사의 신간 『보통의 분노』 출판콘서트 참석/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5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6일 검찰청 방문 및 공판2과 국진 과장, 이성화 검찰연구관, 김성수 수사관 등과 본소와 대검찰청과의 공익소송 협약에 따른 사건 진행 상황과 추후 협조방안 등 논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 28일 정기 후기 이사회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294건

12월

- 3일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회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 토론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4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연수 및 정기총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5~23일 본소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비대면) 실시
- 6일 사단법인 올,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초고령사회와 존엄한 삶'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서울대 아동학과 법률구조체험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12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법률구조 기술평가심사회의 참석 및 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 17일 이태영 선생님 26주기 직원송년회
- 20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법률구조사업 평가회의 참석/
복미영 상담위원, 김미연 담당자
- 27일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신용회복 상담/전규선 상담위원
- 30일 현장실습학생O.T./조은경 상담위원
- 31일 종무식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 학생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4,247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특집 2

상담소와 대검찰청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일주년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법률지원 사건 분석

형사사건에 수반된 가사사건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법률지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간 손이 닿기 어려웠던
인권 사각지대 특히 아동의 인권 보호 실현에 도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검찰청은 2023년 12월 18일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익소송협업체계 구축은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률지원을 필요로하는 사건을 의뢰받아 본소와 협력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며, 협약에 따라 대검찰청과 본소는 형사사건에 수반된 가사관련 사건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이후 45건의 사건이 의뢰되어 진행중이거나 종료되어, 협약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접수, 처리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진행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미처 손이 닿기 어려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 특히 아동의 인권보호와 권리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업무협약 대상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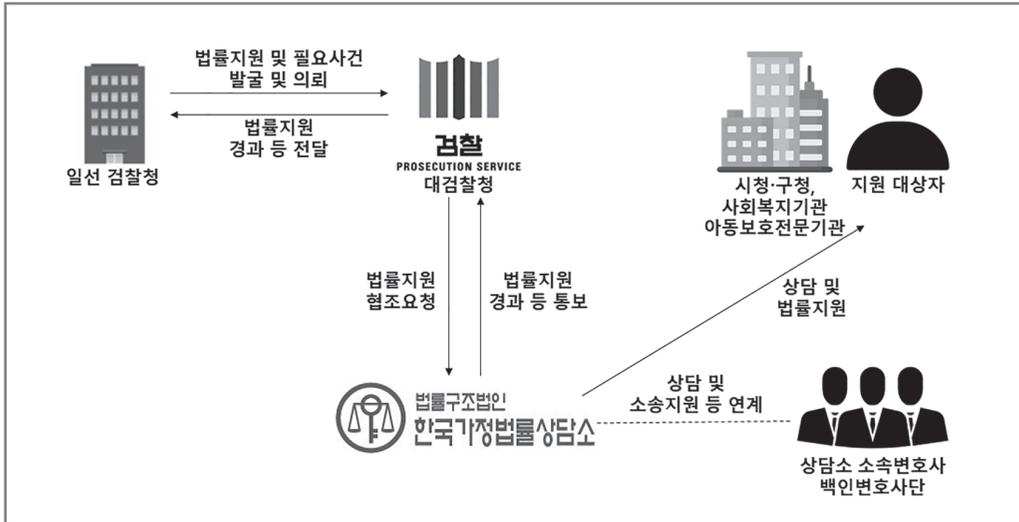
본 협약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사건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의뢰받은 사안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협약시 상정하였던 법률지원 대상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성년 후견개시 및 선임 청구, ▲후견인 변경 청구, ▲파양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성과 본 변경 청구, ▲실종신고(취소) 청구 ▲입양허가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 등.

그런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의 사건들 외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확인 신청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친생부인 소송이 추가 되었다.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친생부인 소송은 혈연관계를 바로 잡을 때 진행되고 있으나, 본 협약에서 지원된 사건들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지원되었다. 또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혼인의 무효확인 소송, 양육비 청구, 부재신고 청구, 이혼 소송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영역의 법률지원활동이 있었다.

2. 업무협약에 따른 법률지원 시스템

대검찰청과 본소의 업무협약에 따른 공익소송 법률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서 수



출처: 2024. 8. 7. 대검찰청 보도자료

사과정 중 가사사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법률지원 필요사건 및 지원 필요 내용’을 전달받아 본소에 법률지원을 의뢰한다. 본소에서는 당해 지검 혹은 지청의 사건 담당자와 지원 대상자 및 유관 기관(구청 혹은 사회복지기관, 필요한 경우 피해자 국선 변호사 등) 등과의 논의 및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지원 필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한다. 이어 본소에서는 상담소 소속변호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백인변호사단 가입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이후 대검찰청과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도표로 보면 위와 같다.

3. 공익소송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분석

1) 접수 건수 및 사건 유형

2023년 12월 18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검찰청에서 본소에 의뢰한 법률지원 요청 건수는 2024년 12월 18일 현재 모두 33건이다. 이중 사건 진행의 필요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별도로 신청사건들이 추가된 것을 포함하면 모두 45건이었다. 사건 내용별로 보면 부모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친권상실 혹은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가 10건이었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확인 신청과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10건이었다. 또 부 혹은 모의 아동 학대로 인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7건, 성년후견인선임 혹은 변경 청구 3건, 미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선임 시 필요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3건, 미성년자입양 혹은 친양자입양 청구가 2건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 주민등록 없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채무부존재확인, 양육비, 등록부정정, 실종신고취소, 부재자신고, 혼인무효, 파양, 이혼 등이 각 1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친부모로부터의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나 출생신고 기피로 인해 학대 당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접수 건수 및 사건 유형〉

사건명	건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10
출생확인신청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0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7
성년후견인선임(변경)	3
특별대리인선임	3
입양(미성년입양/친양자입양)	2
상속한정승인	1
주민등록증재발급	1
채무부존재확인	1
양육비	1
등록부정정	1
실종신고취소	1
부재자신고	1
혼인무효	1
파양	1
이혼	1
합 계	45

2) 처리결과

45건의 사건 중 27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이 진행 중이다. 협약에 따른 사건 진행 초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특성상 검찰 혹은 유관기관들과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극적이어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본소의 다른 소송구조사건들과 확연히 구별되었으나, 이후 검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이 착수되었다. 종결된 27건 중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종료된 것이 14건으로 모두 청구취지대로 인용되었다. 또한 성년후견인선임이나 변경 청구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 특별대리인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소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권자인 검사가 진행하거나 지자체나 후견인센터 등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종결되었다(3건). 그리고 파양과 친권상실 청구이나 법적 제약과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도록 본소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송부함으로써 종료된 것이 2건 있었다. 한편 의뢰인이 서류 안내를 받고도 연락두절 된 경우가 3건, 소송 진행 중에 의뢰인의 사정변경으로 소 취하된 것이 1건, 그리고 부재선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작성 송부 등으로 종결된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법률지원 요청 건이 있었으나 관련 서류 등 검토 결과 구청에 요청을 하여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으로써 소장 접수 없이 종료되었다. 또한 아동매매 관련 아동의 출생신고 법률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피고인들이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이었거나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정정하여 검토단계에서 정리된 경우도 있었다. 본소의 다른 소송구조 사건들과는 달리 변호사의 소장 작성 없이 혹은 소 제기 없이 사건이 종료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사수사과정에서 법리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됨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것은 모두 인용된 특색도 있다.

4. 공익소송 법률지원 사건 사례

각 지청이나 지검 등에서 대검찰청을 통해 의뢰된 사건들 중 종결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이중 종결은 되지 않았으나 관심이 필요한 사건들도 일부 포함하였다.

1)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친권자 변경 청구

(1) 대검24-1(대전지검 홍성지청 2023. 12. 28. 의뢰)

사건명 : 친권자 변경 /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10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여, 10대)의 친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가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상대방은 2016.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건본인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2023. 10.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상대방은 위 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22. 6.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건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사건본인은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계속 보육원에 거주할 예정으로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분리를 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혼한 상태로 본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기를 원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5. 13.)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하 생략)

(2) 대검 2024-10(전주지검 2024. 4. 15. 의뢰)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내용 : 상대방(남, 40대)은 2023. 1.경 이혼 당시 사

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사건본인은 부모 이혼 후 조모가 양육 하였는데, 2024. 3.경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모를 살해하여 전주지검에서 상대방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고모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을 의뢰하였다.

결과 : 결정(전주지방법원 2024. 9. 27.)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이하 생략)

(3) 대검 2024-12(수원지검 2024. 3. 29. 의뢰)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 내용 : 상대방(남, 40대)은 이혼 당시 7명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상대방은 2022., 2023.에 걸쳐 4~5회 차례 사건본인2(여, 10대)를 위력으로 간음, 강간하고 프라이팬, 쇠파대기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 2023. 사건본인3(여, 10대)을 3~4회 강제추행하고 커터칼, 과도, 식칼 등으로 협박, 폭행하였다. 2023. 7.경에는 사건본인1(남, 10대)에게 밥솥과 냄비 등을 던져 폭행하였다. 상대방은 2019.경 및 2022.경 사건본인1, 사건본인4(여, 10대), 사건본인7(남, 9세) 등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대방은 수감중으로 수원지검에서 사건본인들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4. 10. 17.)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하 생략)

(4) 대검 2024-13(의정부지검 2024. 4. 15. 의뢰)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내용 : 상대방(남, 40대)은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2024. 4.경 처를 살해하여 수감중이다. 이들 사이에는 성년 자녀 1명과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망자의 채무가 있어 상속의 한정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미성년 자녀들이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의정부지검에서 자녀들의 이모가 미성년 후견이 되도록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2.)

1.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이하 생략)

(5) 대검 2024-15(춘천지검 강릉지청 2024. 6. 5. 의뢰)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채무부존재 확인/특별대리인 선임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부부인 상대방들은 사건본인들 5명의 부모로서 사건본인들에게 적절한 의식주나 기본적인 양육,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사건본인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지인들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아동학대범행을 방임하여 2024. 6.경 구속기소되었다. 상대방들은 또 다른 자녀인 사건 외 자녀에 대한 유기와 학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이 있고 사건본인 중 한 명을 방치하여 심한 내사시의 증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아동들의 육아와 장애 및 주거지원 등으로 월평균 450만 원 등 합계 약 1억 2천여만 원의 금전을 지원 받았음에도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사건본인들 및 전혼자녀 등 5세에서 11세 사이의 자녀 6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들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들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으로 생활비 및 유흥비에 충당함으로써 위 아동들에게 다액의 통신비 채무 연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강릉지청에서 부모인 상대방들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들에게 전가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진행중

현재 자녀들은 보호시설에 입소중인데, 자녀들에 전가된 채무로 인해 특별대리인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으나 시청 공무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자원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사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을 받는 대로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6) 대검 2024-19(의정부지검 2024. 7. 18. 의뢰)

사건명 : 미성년 후견인 선임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본인들(각 10대)은 2019년 부모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친모가 양육하였다. 사건본인들의 친모는 2024. 6.경 일하던 사무실에서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여 사건본인들은 외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사건본인들 부모의 이혼의 원인이 친부의 가정폭력에 있었고 친부는 양육비 한 번 지급한 적이 없어 사건본인들은 친부와 연락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족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건본인들의 전학 등의 문제가 있어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태여서 의정부지검에서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7.)

1.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이하 생략)

(7) 대검 2024-23(대전지검 2024. 9. 3. 의뢰)

사건명 : 친권상실, 파양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본인1(여, 10대)과 사건본인2(남, 10대)는 2016. 11. 부모의 이혼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친부와 살았다. 친부는 2018. 12. 피고(여, 40대)와 혼인하였으며 피고는 2022. 11. 사건본인들을 입양하였다. 피고는 버릇이 안좋다는 이유로 사건본인1을 폭행했으며 사건

본인1은 피고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2021. 11.부터 2023. 8.까지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다. 피고는 2021. 12.경과 2023. 6.경 사소한 이유로 사건본인2의 머리를 때리거나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렸다. 또한 피고는 2024. 1.부터 수 차례 골프채로 사건본인1을 때렸고, 2024. 3.경 사건본인2의 발바닥을 골프채로 때렸다. 피고는 2024. 5.경에도 사건본인1이 공부 중 휴대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렸으며, 할머니 집으로 내쫓은 뒤 할머니 집에 곧장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배를 발로 수 차례 걷어찼다. 피고는 2024. 6.경 사건본인2가 보고 있는 가운데 사건본인1이 피고가 지시한 것보다 더 많은 문제집을 풀어서 피고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1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골프채로 발바닥을 때렸다. 같은 달 사건본인2가 보고 있는 가운데 사건본인1에게 폭언을 하며 골프채로 수 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등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본인들의 친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사건본인1의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는 현재 수감 중이고 사건본인들의 부는 기소된 상태이다. 사건본인1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와의 파양과 친부의 친권상실을 원하고 있고, 또한 부와 함께 생활 중인 사건본인2에 대해서도 파양이 필요하여 대전지검에서 법률지원을 의뢰하였다.

결과 : 양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재판상 파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승낙을 한 사람이 재판상 파양청구를 해야 한다.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입양할 때 동의와 승낙을 한 것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인 친부인데, 친부는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파양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가 원고가 되어 파양청구를 해야 하고, 또한 친부의 친권상실 역시 특별대리인을 찾을 수 없어 검사가 청구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김민선 변호사가 파양청구의 소와 친권상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률지원을 의뢰했던 대전지검에 송부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다.

(8) 대검 2024-17(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2024. 6. 19. 의뢰)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청구인(여, 10대)과 사건본인(여, 10대)는 상대방(여, 40대)과 A씨 사이의 자녀들이다. 상대방과 A씨는 2016. 12.경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로 A씨가 지정되었으나 2018. 4.경 상대방으로 변경되었다. 상대방은 제3자인 B씨 및 사건본인의 친부 A씨와 공모하여 2023. 2.부터 2023. 3.경 사이 그리고 2023. 7.경 청구인과 청소년인 사건본인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체를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상대방은 2022. 3.경부터 2023. 10.경까지 사건본인의 손바닥을 신발주걱, 나무빗자루 등으로 수 백 회 때렸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더운 물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2023. 9.과 10.경 두 차례 사건본인을 나체 상태로 벌을 주어 학대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로 사건본인의 친모이자 단독친권자인 상대방과 친부는 현재 수감중으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사건본인의 언니인 청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9. 10.)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 (이하 생략)

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확인청구 및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친생부인의 소 등

(1) 대검 2024-5(수원지검 안산지청 2024. 1. 22. 의뢰)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친양자입양 청구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원고(여, 4세)는 모인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여, 30대)가 혼인 중 신원 미상인 사람과의 사이에서 2019. 5.경 출생하였다. 피의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2019. 5.경 C씨(남, 40대)과 결혼하였고, 원고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피의자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었다. 피의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C씨는 원고를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여 유전자검사를 받았으나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의자는 마약관련 형사사건으로 강제출국 당하였고, 원고는 C씨가 실질적인 양육자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안산지청 담당 검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시청에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시청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C씨는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와 친양자 입양을 원했다. C씨는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우선 피의자의 전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베트남에 있는 피의자로부터 C씨가 원고를 친양자입양하기 위한 관련 서류들의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11. 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2) 대검 2024-7(창원지검 마산지청 2024. 3. 6. 의뢰)

사건명 : 친생부인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199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와 별거하였는데,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부남인 D씨와 동거하며 2011. 5.경 사건본인(남, 10대)를 출생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자녀로 기재된다는 것을 알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건본인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고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여 원고는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산지청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1. 29.)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이하 생략)

(3) 대검 2024-28(수원지검 2024. 10. 22. 의뢰)

사건명 : 출생확인신청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피의자들은 사건본인(남, 10대)의 친생부모로 사건본인의 모는 사건본인의 출생시 지인(여, 50대)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였고,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피의자들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은 후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사건본인은 2025. 2. 접수 예정인 초졸 검정고시를 본 후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어서 수원지검에서 검정고시 접수일 이전에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4. 12. 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

3) 미성년 입양청구

(1) 대검 2024-2(의정부지검 2024. 1. 15. 의뢰)

사건명 : 미성년자 입양 허가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본인(여, 10대)의 친부는 2023. 11.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본인의 친모를 살해하여 수감 중이다. 사건 이후 사건본인의 이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모 부부가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양육하고자 의정부지검에서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4. 7. 24.)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

4) 실종선고 취소

(1) 대검 2024-30(강릉지검 속초지청 2024. 11. 5. 의뢰)

사건명 : 실종선고 취소 /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내용 : 청구인(여, 50대)는 2024년 속초지청에서 피의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1.경 본인이 실종선고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속초지청에서 피의사건 조사 시 십지문 신원조회를 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소에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12. 18.)

대구가정법원 2011느단****호 실종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2024년 공익소송 법률지원을 요청한 전국 검찰청 명단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 의정부지방법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법검찰청 강릉지청, 춘천지방법검찰청 속초지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대전지방법검찰청, 대전지방법검찰청 홍성지청, 청주지방법검찰청, 대구지방법검찰청, 창원지방법검찰청,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 광주지방법검찰청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등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10)

제 8 강 건강한 삶의 근원을 만드는 아동기 정신건강

■ INTRODUCTION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8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병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부모는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 POINT

1. 서론

성격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크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녀는 부모, 조부모의 성격을 닮게 된다. 타고난 정신적 어려움 중 지적장

애, 자폐, 학습장애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본성과 가까운 영역이다. 이와 반대로 어린 시절 양육에서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면 이후 사회관계가 원활해지는데, 애착 관계 형성이 잘되지 않으면 반항 및 적응장애가 생길 수 있다. 본성과 양육 사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ADHD, 우울 및 불안장애, 틱장애 등이 있다. 특히 부모가 규범을 강하게 요구하면 틱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는데,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 실수하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 아이의 틱장애는 더욱 심해진다.

2. 본론

(1)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 병리 소개

정서장애 및 적응장애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크고,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등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등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등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정신병 및 발달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이 크다. 품행장애는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것이 결합한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을 무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책감이 별로 없는 것이 품행장애의 특징이다. 품행장애 아이가 자라서 사이코패스로 발전하게 될 경향이 높다. 아래에서 정신병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① 기분장애

대표적으로 기분장애가 있다. 이 중에는 우울증이 대표적이다. 우울증은 슬픈 느낌에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지는 것으로, 어떤 것에도 흥미나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 식욕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죄책감과 무가치감에 휩싸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의 양상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아동의 우울증은 주로 배가 아프다고 한다. 청소년의 우울증은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내며 물건을 집어 던진다. 주의집중이 안되기에 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노인의 우울증은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를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신체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보면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 우울증을 겪는 아동 중에는 겉으로는 명랑하고 밝은 친구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가정 내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든 밝게 보이면서 가족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하는데 이런 경우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한다.

② 조울증

조울증은 기분장애 영역에는 속하지만 정신증에 더 가깝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울증은 잠깐 정상 상태를 보이다가 우울증에서 조증 상태로 갑작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 조증 상태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워도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과소비를 하기도 한다. 조현병의 양성증상인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 조증 상태는 정신증적인 모습도 같이 보이기에 최근에는 조울증은 정신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③ 공황장애

불안장애에서 공황장애는 나쁜 스트레스가 누적되다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공황장애는 맥박이 뛰고 과호흡 증상이 온다.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가면 아무 진단명이 안 나온다. 아버지가 아이의 성적에 너무나 엄해서 아이가 공황장애를 겪는 예도 있었다. 이러한 증상은 아버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④ 사회공포증

사회공포증에는 발표를 잘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더니 친구들이 웃었던 경험을 한 아이가 그 후에도 그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해당 경험 이후로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 앞에만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게 된다.

⑤ 강박증

강박증도 불안으로 인해 생긴다.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서 안 떠나면 강박 사고라고 한다. 강박 행동은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상쇄시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결벽증이 있다. 결벽증 환자들은 내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몇 시간씩 손을 씻는다. 나는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이 씻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물건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자기 내면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 어떻게든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다. 또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도 있다. 이러한 것은 마음의 공허감을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다.

⑥ 알코올 남용

행동 문제 중에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최근 10대의 알코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평소에는 착하고 자기의 표현을 못 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억압하고 있다가, 술이 들어가면 남에게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싸움도 건다. 술을 통해서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고 힘을 발산하는 것이다.

⑦ 품행장애

ADHD에서 품행장애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ADHD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무시받는 아이들도 남에게 관심 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따라서 자꾸 일탈행동을 하게 되면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평범한 ADHD 증상만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품행장애로 악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⑧ 도박, 인터넷 중독

도박,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내 부모와 건강한 의사소통이 안 된다. 부모가 아이를 야단만 치거나 폭력적인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는 우울감을 느끼고, 이 우울감으로 인하여 특정 행동에 과몰입하게 되고, 그러한 과몰입이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갑자기 어느 날 부모가 혼내면서 게임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의 게임 중독 문제가 바로 개선되지 않는다. 중독은 자꾸 그 행동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이다. 갈망이 있는 한 중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무작정 아이를 혼내기만 하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를 심화시킨다.

⑨ 거식증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못 받으면 내가 외모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모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살을 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먹

는 걸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를 거식증이라고 한다. 거식증을 앓는 아이들은 갑자기 많이 먹고 토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온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해질에 이상이 생겨 사망할 수도 있다. 비슷하게 폭식증, 대식증도 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먹고 살이 계속 찌는 것이다.

⑩ 기면증

기면증은 갑자기 졸도하듯이 잠이 드는 것이다. 높은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졸음이 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기면증이 있는 아이는 반드시 신경학적인 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⑪ 신체추형장애

신체추형장애, 신체이형장애가 있다. 두 가지는 같은 병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는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의 어느 한쪽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볼 것이라고 믿고, 내 신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느낀다. 그런 생각이 극단으로 가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다. 이 경우 심리적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성이다. 사회성이 있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40년간 추적연구를 했더니 이들 중에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좌절할 일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잘 찾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 건강한 애착을 기반으로 한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성이 결핍되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⑫ 자폐증

예전에는 자폐증을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현재는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엄마와 아빠가 조용하게 얘기해도 싸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자폐증은 외부의 자극을 증폭시켜서 받아들인다. 자폐증 중에는 아스퍼저장애, 고기능 자폐장애도 있는데, 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스퍼저장애 중에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토벤 교향곡을 한번 듣고 멜로디를 재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사회성이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도 정신병리를 분석할 수 있다. 영아기와 걸음마기, 학령전기 시기를 나눌 수 있다. 학령전기에서 특히 분리불안장애, 유뇨증, 유분증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아이를 혼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가 힘들어질 수 있다. 학령기에는 학습장애, 틱장애, 반항성 도전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우울증, 품행장애, 물질남용, 초기 정신증이 올 수 있다. 조현병은 보통 발병 시기가 20대 초중반이다. 청소년기는 조현병 발병 전에 뭔가 안 좋은 조짐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청에 반응을 보이고 환청에 대꾸하며 웃고 대화하다가 조현병이 발병하게 된다. 청소년기부터 사회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조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주의하여 관찰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2) 아동 청소년기 정신병리의 특징

① 지적장애

지적장애의 척도로 과거에는 IQ 점수를 중요하게 여겼으나 지금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를 더 많이 본다. 이에 관한 기준은 지적 능력의 결함, 적응 능력의 결함 여부이다. 시간 관리, 돈 관리, 대인관계, 생활 관리 등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적응 능력의 결함이다. 특히 적응 능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계나 대화를 주고받기가 원활히 되는지를 본

다. 5세 이하의 아동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5세 이후부터 검사한다.

지적장애 아동은 유아기에 부모에게 애착 반응이 없거나 지연될 수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어려울 수 있다. 학령기에는 자기 나이만큼 학습적인 기술에 숙달하지 못한다.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는 의사소통, 인지적 및 추상적 기술이 요구되는 또래 아이들 그룹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성적인 문제에서도 예전에는 주로 피해자가 되었으나 요즘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적장애 동반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지적장애 아동의 질환이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자폐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아도 부작용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②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증 아동은 대화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 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의 뇌를 보면, 거울 뉴런(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어 공감을 잘하지 못한다. 어떤 환자는 특정 번호의 버스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몇 십 년 전의 드라마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 대사만 반복해서 따라하기도 한다. 이처럼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동일 패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자폐증 환자에게서 보인다. 또는 감각에 대해 과한 흥미나 활동을 보인다.

③ 학습장애

특정한 학습장애는 어떤 뇌의 특정한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때 부모가 억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습성취에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들이 있다. 우선 학습장애는 IQ가 70 이하인 경우로 지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

우이다. 뇌를 다쳐서 학습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학습지진은 지적장애의 경계선에 있으나 부단히 노력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때는 IQ가 70~85 정도로,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차근차근 대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학습부진이 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환경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학습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 아이들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가족 내 갈등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 저하를 이해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는 정서적 사회환경적 문제가 없지만, 뇌의 특정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것은 뇌 기능, 뇌 성숙의 문제이다.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산모가 임신했을 때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알레르기나 중이염과 같은 신체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이가 무조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혼낼 게 아니라 아이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습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망하는 능력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과잉행동, 충동조절장애, 수동공격적 행동이 있을 수 있다. 또래, 부모, 교사들이 학습장애 아동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하는 경우 자신감과 동기가 저하되고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학업 실패, 집에서 혼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청소년기로 갈수록 비행을 보일 위험이 크다.

④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 아동은 기본적으로 어휘가 매우 부족하다. 예컨대 부모가 바빠서 아이에게 유튜브만 보여주어 아동이 의사소통장애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유튜브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니다. 이처럼 부모와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경험이 아이에게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아이와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의 언어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⑤ ADHD

임상경험 상 ADHD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자아이들은 조용하지만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빤히 바라보지만, 수업 자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머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산만하게 왔다갔다 한다. 이때 아이의 특징을 잘 보고 이에 맞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3일 정도 밤을 새우면 굉장히 산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히죽히죽 웃으며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 상태가 ADHD와 비슷해진다. ADHD는 중추신경 자극제, 일종의 자극제로 약물치료를 한다. 그러나 ADHD 아이들은 정서적인 문제, 분노조절장애도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약물치료와 다른 치료를 병행해야 안정이 된다. ADHD 아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⑥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아이가 어릴 때는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커서 보니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파괴적으로 화를 낸다. 한번 화를 내면 매우 격분하고, 이 나이의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를 낸다. 한번 화를 낼 때 그 사이에도 무언가 징후가 있다. 예민하고 곤두선 모습을 같이 보이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런 양상이 같이 나타난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면 위험해질 수 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으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⑦ 적대적 반항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는 부모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생한다. 항상 누구 때문이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종류는 권위있는 인물과 논쟁하는 논쟁적, 반항적 행동을 보인다. 고의로 타인을 괴롭히고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한 행동을

잊지 않고 양심을 품는다.

⑧ 품행장애

품행장애 아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성, 타인을 괴롭히고 육체적 싸움을 도발하고, 무언가를 훔치거나 타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다. 또 거짓말을 반복하고, 나이가 더 들면 가출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모가 아이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⑨ 반응성 애착장애

반응성 애착장애는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데도 부모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반응을 구걸한다. 타인에게 사회적,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이 별로 없다. 양육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짜증, 슬픔, 공포를 보인다. 부모에게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양육자가 자주 바뀌면서 애착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⑩ 운동장애

운동장애의 종류에는 운동실조, 안검경련, 발성곤란, 근긴장이상, 보행장애, 경직, 뚜렛증후군 등이 있다. 운동장애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그래야 점진적으로 호전될 수 있다.

⑪ 배설장애

미국의 심리학자 왓슨은 행동주의라는 기법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왓슨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변 훈련을 강하게 했다. 나중에 세 아이 중 한 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망가졌다고 얘기했으며, 다른 한 아이는 자살로 사망했고, 한 아이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이는 아이를 어려서부터 따뜻하게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한 사람의 뇌신경세포(뉴우런)보다 훨씬 많은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한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다른 집 자식이라거나 먼 우주에서 지구에 잘못 맡겨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면 뇌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의 뇌세포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참사람이 되는 길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되면 단순해진다. 길을 걸을 때 길만 걷고, 밥을 먹을 때도 밥만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잘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의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길을 걸을 때도 오만가지 생각이 나를 짓누른다. 그렇기에 부모가 아이에게 건강한 모습,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보이는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에 아이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3. 결론

여러분이 혹시 지금 불행하다면 나부터 바뀌어야 우리 가족관계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 아이와 같이 잘 놀고, 인내심을 가지며,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아이에게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아이를 수용하고 지지해주며, 아이가 잘한 일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1)

1. 법적 불평등의 구체화 ①

민법안은 그 입법 방침이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은 남녀평등 이념과는 거리가 먼 '관습중론'에 입각한 법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태영 등 여성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위헌적인 차별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었다.

첫째, 법률제도로써 하등 그 존재가치가 없는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부부생활의 파탄 시에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친권행사에 있어서 부모 공동주의를 취하지 않고 부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다는 점. 넷째, 재산상속에 있어 부(夫)는 처의 재산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지만 처는 부(夫)의 재산을 직계비속 및 부(夫)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도록 한 점 등이 그것이었다.

이 네 가지 조항은 친족상속법의 골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세부적인 차별 조항을 지적하자면, 민법 친족상속편 초안은 여성의 지위에 관해 여러 가지 차별을 두고 있었다.

우선 친족편에서는 ① 부(夫)의 전처 소생 자녀나 혼인 외 출생자와는 계모 및 적모관계가 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처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점, ② 친족범위에 있어 부(夫) 측을 처(妻) 측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한 점, ③ 처가 부(夫)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을 입적시키려 할 때는 부가(夫家)의 호주 및 부(夫)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제778조), 부(夫)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입적시킬 때는 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④ 여호주는 호주상속할 양자를 입적한 때에는 호주권을 내놓아야 하고(제784조), 여호주가 혼인하면 폐가를 해야 하는 점(제786조), ⑤ 부(父)계 혈통만을 중심으로 한 동성동본불혼조항을 둔 점(제802조), ⑥ 부부동거 장소를 부(夫)의 주소나 거소로 지정한 점(제819조), ⑦ 부부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나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점(제822조), ⑧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는 부(父)를 우선으로 하고 모(母)를 이차적으로 한 점(제906조) 등을 들 수 있다.

상속편에서 지적할 수 있는 남녀불평등 조항은 ① 딸의 호주상속 순위가 최하위인 점(제988조), ② 출가한 딸은 재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산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점(제1007조), ③ 부(夫)는 처의 재산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지만 처는 부(夫)의 재산을 직계비속 및 부(夫)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도록 한 점(제1009조), ④ 함께 재산을 일군 처의 상속분이 호주상속자보다 적고 기타 직계비속 및 부(夫)의 직계존속과 균등한 것 등이다.

이처럼 법적 불평등이 구체화된 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여성계는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4년 11월 초, 황신덕을 비롯한 김활란·표경조 등 여성계 지도자 50여 명이 대한YWCA연합회 회장이던 박마리아 집에 모여 공동대처를 논의했다. 모임 첫머리에 친족상속법에 대한 이태영의 강연이 있었다.

활동 전략은 대략 세 범주로 짜였다. 우선 긴급한 것으로, 첫 번째는 ‘친족상속편에 대한 건의 및 진정서’를 계속해서 관계 요로에 보내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대중계몽 강연과 방송매체의 활용, 그리고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었다.

한편, 1,118개 조문과 부칙 32개 조문 등 총 1,150개 조문으로 구성된 정부 측의 민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틀 만인 1954년 10월 28일에 법제사법위원회(박세경 위원장, 이하 법사위로 약칭)에 회부되었다.

법사위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54년 11월 6일 ‘민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듬해인 1955년 3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가지면서 1955년 7월 말까지는 심의를 완료하고 법사위를 거쳐 그해 9월경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1955년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제1차 심의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정부안에 대한 제안 이유도 없고 법전편찬위원회의 심의기록도 없어 소위원회가 정부에 그 제출을 요구하자 법제실에서 간단한 제안 설명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소위원회는 부득이 그대로 심의하여 1955년 말까지 물권편 300여 조를 심의하는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 회기중의 당면 안건 처리 문제 때문에 민법 심의는 일시 중단되었다.

제2차 심의는 1956년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가졌다. 제2차 심의에서도 정부의 제안 설명이나 심의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심의 경과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즉 민법 초안 중 1편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등 760개 조항의 축조심의를 완료되어 수정안이 발표되었고, 4편 친족, 5편 상속에 관하여는 축조의 기준이 될 ‘심의요강’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를 법전편찬위원회의 ‘원요강’과 구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요강, 즉 ‘법사위 요강’이라 부른다.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요강이 결정되자 법사위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이는 1956년 9월 발표되었다. 법사위는 요강을 발표하면서 기초자 측의 자료나 제안 설명이 없는 관계로 관습법을 포함하는 현행법을 비롯하여 판례·학설·입법례 등과 국내 입법의견으로는 주로 여성단체 의견을 참작하여 요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1960. 7. 19.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면서 진행된 여성단체연합 축첩반대 시위 모습



▲ 한 참가자가 ‘첩 둔 남편 나라 망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당시 친족상속편에 대해서는 사법계의 관심이 컸는데, 친족편 34항목, 상속편 7항목으로 구성된 법사위 요강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원요강'과 상치되는 점이 많아 더욱 주목을 끌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은 변혁적인 규정으로 꼽혔다.

- (1) 친족 범위의 축소
- (2) 남녀 구별 없는 자유분가제
- (3) 동성동본불혼제 철폐
- (4) 처의 행위능력 인정
- (5) 이성양자제, 서양자제 및 항렬무관의 양자 인정
- (6)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분리
- (7) 여자에 대한 상속 인정

이를 두고 원로층과 젊은층 법조인의 대립이 팽팽했는데, 전자는 반대하는 기세를 보이고 후자는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요강은 민법상 혁신적 남녀평등을 고대해 온 여성계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장벽을 확신시켜 줄 뿐이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몽과 여론조성 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국회의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요강에도 남녀차별적인 조항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국내 입법의견으로 여성단체 의견을 참작하였다고 하는데도 이런 차별이 노정된 것은 “법안 심의라는 것은 기초와는 달리 초안 중 특히 수정해야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에 한하여 수정을 가하고 가능한 한 초안을 따르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법사위의 입장이 반영된 때문이었다.¹⁾

이처럼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미풍양속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 점진적 개혁론의 입장을 뚜렷이 했다. ‘전통과 관습법에 관한 한’ 헌법에 명시된 남녀 평등주의 사상을 위반하면서까지라도 현 체제 유지에 더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통적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편집부

1) 국회속기록 제29호, 1957. 11. 5. 이태영, 앞의 책, p.53에서 재인용.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대학생 자원봉사

정정연, 정가영, 류제빈, 김민서, 이양현, 나윤우, 김연지, 서채영, 고유진, 김태연, 최연지, 김민지, 정재경, 박수빈, 노태연, 김현빈, 오나현, 강민서, 김용평, 조민규, 김지원, 김주하, 한아름, 이재영, 장진희, 최민제, 강영진, 김시현, 하유지, 이서연, 황예원, 김상은, 이혜원, 이채윤, 이다경, 임성완, 김예지, 김경민, 이경주, 구가연, 손유정, 김예원, 천장원, 원대한, 김은유, 정민주, 장다원, 이은세, 최서연, 이다빈, 방승현, 전서영, 문정현, 김다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천정환, 양병희, 최문원, 이현혜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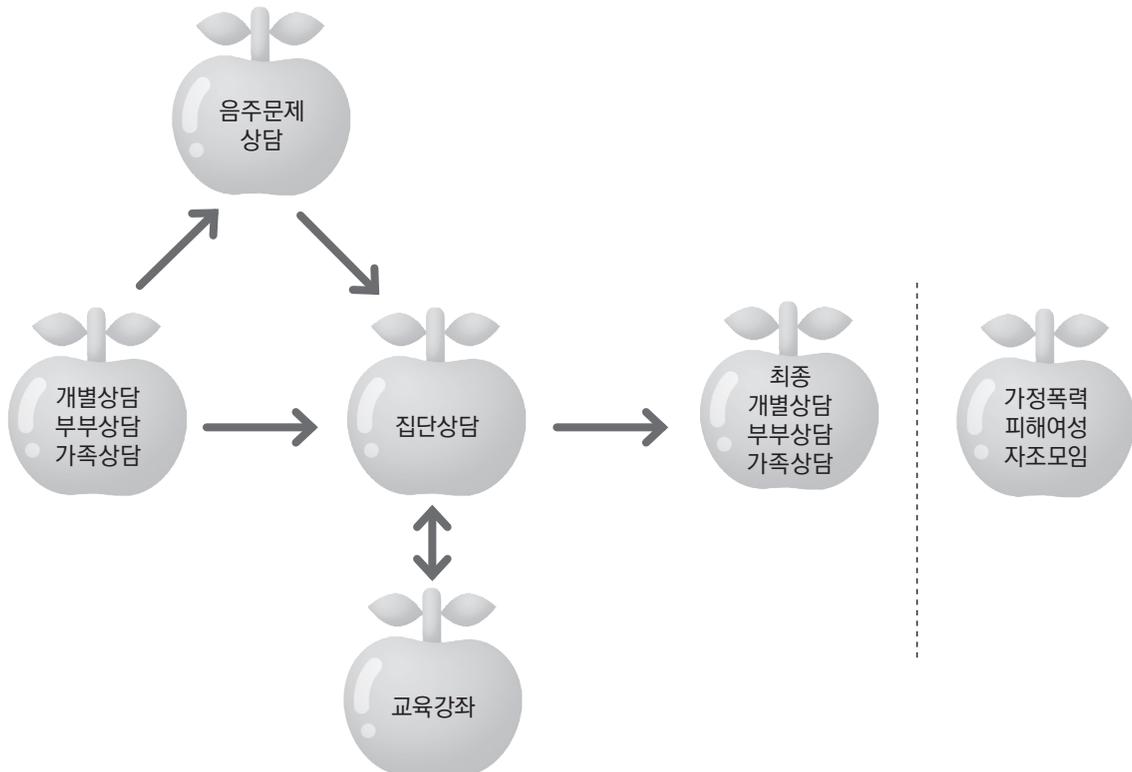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상담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진행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소는 2025년에도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상담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과 교육강좌는 대면으로, 집단상담/음주문제상담/자조모임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2025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사전예약 필수)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통해 부부 및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방안 모색

- ▶ 일 시 : 연중
- ▶ 대 상 :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
-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사전예약 필수)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 일 시 : 연 4회(각 4회기, 매회기 2시간)

날짜	1회 : 3/7, 3/14, 3/21, 3/28	(4회기)
	2회 : 6/13, 6/20, 6/27, 7/4	(4회기)
	3회 : 9/5, 9/12, 9/19, 9/26	(4회기)
	4회 : 11/7, 11/14, 11/21, 11/28	(4회기)
회기별 주제	1회기 : 음주와 트라우마	
	2회기 : 음주와 뇌	
	3회기 : 음주와 공동의존	
	4회기 : 음주와 회복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대 상 : 폭력 및 부부(가족)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III. 집단상담 (사전예약 필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공유

집단상담 ①

-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행위자
- ▶ 진 행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이서원 대표

집단상담 ②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 진 행 : 정윤경 교수(연세솔루션상담센터)



정윤경 교수

집단상담 ③

- ▶ 일 시 : 필요시
-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IV.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순찬 교수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제목	강사
1월 8일	우물에 가서 송충 찾는 마음, 조바심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 케어센터)
2월 12일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드는 마음, 답답함	
3월 12일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	
4월 9일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	
5월 7일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V.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일 시 : 연 3회(각 8회기, 매회기 2시간)

날짜	회기	주제
1회 : 2/6, 2/13, 2/20, 2/27, 3/6, 3/13, 3/20, 3/27	(8회기)	
2회 : 6/5, 6/12, 6/19, 6/26, 7/3, 7/10, 7/17, 7/24	(8회기)	
3회 : 10/16, 10/23, 10/30, 11/6, 11/13, 11/20, 11/27, 12/4	(8회기)	
회기별 주제	1회기 : 프로그램 소개와 관계 형성 2회기 : 폭력의 유형과 안전계획 3회기 : 자기 돌봄 4회기 : 긍정 사고와 감정조절 5회기 : 체계적 문제해결 6회기 : 부부관계 탐색 7회기 : 의사소통 기술 8회기 : 임파워먼트와 미래계획 세우기	

▶ 일 시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 2024년 12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12/5	11명	의사소통 기술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19	10명	자기돌봄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12/4	12명	관계의 정석, 힘 있는 사람이 잘해야 한다.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 케어센터)
		12/11	17명	내가 닳고 싶은 한 사람	
		12/18	16명	관계의 비결, 짝돌이 되지 않기	
동지교실	12/11	57명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⑤

● 입양의 효과

Q 문 39 |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입양이 되면 저와의 부자관계는 끊기는 것이지요?

A 입양은 친자관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772조 제1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한편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합니다(동법 제882조의2). 따라서 귀하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부양·상속관계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이 될 때에는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의 친생자로만 보게 되고 따라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동법 제908조의3).

●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입양은 무효이다

Q 문 40 | 이저는 24세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숙부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숙부의 양자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저의 동의 없는 입양신고가 효력이 있나요?

A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83조 제1호). 입양 당사자인 귀하와의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이므로,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 제3자가 입양을 강제할 수 없다

Q 문 41 | 저희는 아들만 둘이 있고 시숙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15살인 큰아이를 시숙 부부에게 양자로 주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를 양자로 줄 생각이 없고 시숙 부부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억지로 제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지요?

A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1호). 또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가 입양승낙을 해야 하고(동법 제869조 제1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므로(동법 제867조) 시아버지 혼자서는 입양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친권자의 승낙 없이 입양된 경우 입양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Q 문 42 | 3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10개월 전 제가 병이 심하여 9살 된 아이를 전남편에게 잠시 맡겼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그 사이 다른 집에 입양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A 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제2항). 귀하는 아이의 친권자로 입양 시 귀하가 아이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이의 양부모를 상대로 양부모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83조 제2호).

●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Q 문 43 | 평소 남편이 25살 된 조카를 양자로 데려오고 싶어했으나 저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 혼자서 그 조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 입양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를 제

외하고는, 배우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 제1호;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74조 제1항). 그런데 귀하의 동의 없이 남편이 혼자서 입양했으므로 남편과 양자 사이의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입양이 될 수 없다**

Q 문 44 |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의 양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분이 최근에 재혼하여 부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입양되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A 존속 또는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으며(민법 제877조)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동법 제874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모가 될 자가 귀하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 **입양 취소를 하려면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한다**

Q 문 45 | 14세의 미성년자를 입양하였는데 마음이 바뀌어 입양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정법원에 입양취소를 청구하면 취소되는 건가요?

A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취소사유에는 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2항, 제867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입양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40여 년 전 여동생(실종 당시 5세)을 버스터미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여동생을 백방으로 찾아 나섰으나 여동생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법원에 실종신고 심판청구를 하면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A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여동생이 실종된지 5년 이상이지났으므로 법원에 실종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신고는 민법 제27조에 의하여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처럼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부재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8조).

따라서 귀하의 사안의 경우 여동생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실종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귀하께서는 여동생(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신고 청구를 하면, 법원은 여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실종자 생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또한 실종선고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실종신고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는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2. 사건본인(부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3.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등입니다.

복미영 상담위원

좋은 책



나를 키운 것의 상당 부분은 만화 그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 만화다. 일본 만화인지도 모르고 보아온,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름을 알게 된 작가 이케다 리요코, 그녀의 만화 『베르사이유의 장미』, 『올웨스의 창』을 빼고 내 아동, 청소년기를 기억할 수 없다. 이 두 만화의 정식판이 나오면서 이름을 알게 된 작가가 슈테판 츠바이크였다. 『베르사이유의 장미』의 원작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쓴 저명한 전기 작가가 슈테판 츠바이크다. 또한 그는 회고록 『어제의 세계』를 통해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영감을 준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책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는 그의 생애 마지막 2년의 기록을 담은 미공개 에세이로, 독일의 유명 편집자 폴커 미헬스와 츠바이크 연구자 클라우스 그레브너가 발견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188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베를린대학교와 빈대학교에서 철학과 문예학을 전공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럽 각국의 언어와 문학에 정통했으며 시와 단편 소설을 발표해 명성을 쌓았고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조제프 푸셰』, 『마리 앙투아네트』, 『메리 스튜어트』, 『에라스무스』, 『마젤란』, 『발자크』 등과 같은 뛰어난 전기를 썼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중·단편 소설 및 회고록 『어제의 세계』를 남겼다. 1938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1940년에는 미국으로, 1942년에는 브라질로 건너갔다. 1942년 2월 23일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페트로폴리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는 그가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남긴 기록으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인간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마지막 에세이를 읽으며 그의 자살이 더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토록 섬세하고 이토록 사람에 대한 애정과 희망이 있으나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라는.

그의 미공개 에세이를 발견하고 엮은 독일 편집자 폴커 미헬스와 츠바이크 연구자 클라우스 그레브너는 이 아홉 편의 글을 두고 슈테판 츠바이크 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추억과 격려의 글들”이라고 평한다.

츠바이크의 세계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고향과 친구들을 잃었고 언어마저 잃었다. 신문과 편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될 때마다 크게 좌절했다. 그는 브라질 망명 생활 중에 만난 동료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장 무의미한 파괴가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자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1942년 초, 그가 자살하기 얼마 전에 남긴 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책에 남긴 안톤을 생각하며 그리고 메테르니히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식상한 표현이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리고 오래 기억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 중의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끝끝내 인간으로 남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숙현 편집부장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지막 수업

클라우스 그레브너, 폴커 미헬스 엮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20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요약해서 싣는다.

이 지 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 원 희

동국대학교 법학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가정 내 문제 및 여성의 인권신장을 최전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하고 싶었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단순히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을 대중화하고 가정 문제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도서실 업무와 서울가정법원 참관을 통하여 법적 자료 관리와 법적 절차의 실제 운영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법률이 단순히 문서상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과 중재 활동이 분쟁을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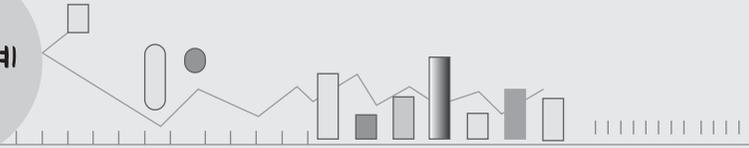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법률 지원과 상담이 단순한 지식 제공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법률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전화 안내 업무, 법률상담 참관 등을 통해서 법률상담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억울한 상태에서 상담자를 찾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봐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내용이 매우 많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분도 계신다. 그 속에서 알아서 쟁점을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다. 상담자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정리하고, 의뢰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는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여 화를 내기도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자는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피해자의 끔찍했던 과거 경험을 듣기도 하고, 증거 사진으로 그 상처를 마주하기도 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진정한 법률상담을 위해 법률 지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5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종무식에서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한 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력해 온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도 배워야 할 일이라는 깨우침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시무식에서는 해마다 그러하듯이 2025년 새해에도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모두 잘 수행해 가자고 격려했다. 아침 회의를 겸해 열린 시무식은 상담소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관련사진 2면)

이태영 선생님 26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찾아 참배하며 헌화하고 귀한 뜻 새겨

지난 2024년 12월 17일은 1998년 12월 17일 영면에 든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6주기였다. 이에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을 통해 조출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광배희 소장과 직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상담소를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린 선생님의 귀한 뜻을 기리며 길이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사진 2면)

본소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비대면) 실시

본소에서는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소에서는 2024년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유형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대나 폭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이번 교육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서연우, 정준희 (2024. 12. 30.-2025. 1. 27.)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회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

의 동향」에 관해 토론발표 하였다. 4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12일 여성가족부 주관 가정폭력피해자 법률구조 기술평가심사회에 참석, 발표하였다. 18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을 조정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3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 연수 및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6일에는 사단법인 울,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가 “초고령사회와 존엄한 삶”을 주제로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20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4년 1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247			
법률상담 (3,475)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888	2,479	106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94		42	36

• 인터넷 정보 이용 150,40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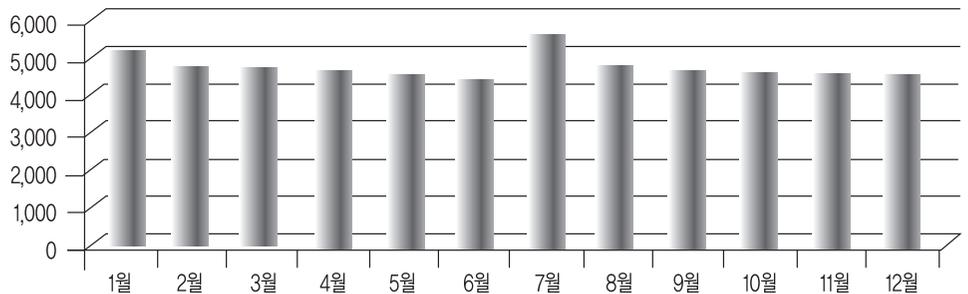
2024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4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75건(81.8%), 화해조정 694건(16.3%), 소장 등 서류작성 42건(1.0%), 소송구조 36건(0.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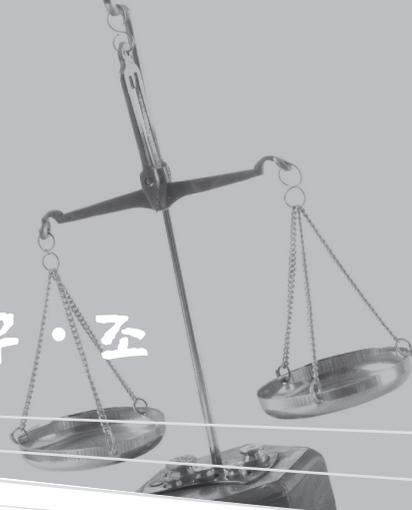
법률상담 3,47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11월에 비해 부부갈등(3.6%→3.8%), 이혼(18.0%→29.8%), 부양(0.7%→1.0%),

미성년후견(1.3%→1.4%), 가사절차(3.7%→4.8%), 임대차(0.1%→0.2%), 파산(1.5%→2.0%), 민사기타(0.5%→0.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7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88건(25.6%), 전화상담 2,479건(71.3%), 인터넷상담 106건(3.1%), 지상상담 2건(0.1%)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20년 전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177

담당 : 소정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1995년경 중국 파견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 3년에 한 번 정도 입국하여 잠시 집에 머물다 출국하기를 반복하였다. 2002년경 피고가 입국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가 어떤 여성과 중국어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피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20년 넘게 피고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4. 11.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4-1-236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14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20년 12월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협의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760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4. 12. 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호 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20. 12. 8.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4.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200만 원을 분할하여 2025. 1.부터 12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242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50대)는 2005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05년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중국 요령성으로 출국하여 현

지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귀국하였다. 원고는 입국 즉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가 입국하기를 기다렸으나, 이후 피고는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혹시라도 피고가 입국하거나 원고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19년을 기다려 왔으나, 피고에게 연락할 방법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1.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를 폭행하고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279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2018년경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건 직후 러시아로 출국하였는데 러시아에 머무는 2개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설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온 후 피고는 원고 보다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고, 외박도 하였다. 친구들과 집에 데려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원고가 건강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할 때도 친구들과 데려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어느 날 피고는 갑자기 큰 빛이 생겼다고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살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가 낯선 남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참을 수 없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2020년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날로부터 3주 후 원고는 시어머니로부터 피고가 구

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피고는 마약 혐의로 구속되어 2024년 1월경 출소하였다. 피고는 수감 중 원고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용서를 구하며 출소 이후 진정한 가족을 이루자고 하였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피고는 출소 후 원고에게 잘 살라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4. 11.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25. 1. 15.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224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가정을 꾸렸다. 5인 가구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아기용품을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경쟁업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적자가 지속되자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배우자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잘되지 않아 빚은 더욱 늘어났으며, 신청인은 사업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해봤지만 자녀들의 양육문제와 겹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3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며 소득이 저조해 차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1.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1월 8일	우물에 가서 송능 찾는 마음, 조바심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2월 12일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드는 마음, 답답함	
3월 12일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	
4월 9일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	
5월 7일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모든 가정의 수만쯤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겨울의 끝에는 봄이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을사년 새해는 더 지혜롭게 성장하는
모두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창립 69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복리를 지키며
그들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www.lawhome.or.kr